2006 명암 중 트렌드로 본 2006

첫 여성총리 등 거센 '女風' 지역민 울린 부동산 '狂風'

UCC 선풍 인터넷 스타 배출
완도 생일도에선 '괴물 소동'
'이구백' 등 취업난 신조어도

2006년만큼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진 해도 없었다.

한명숙 총리가 지난 4월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고,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의 14.5%(525명)가 여성이었다.

각종 시험에서도 여풍(女風)이 거셌다. 올해 제48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는 박정은(여·26·서울대 법대 졸)씨로, 3년 연속 여성이 사시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사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도 37.73%(375명)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전남대의 경우 40%인 8명이 여성이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첫 헌법재판소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효숙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로 103일만에 지명 철회되는 불운을 맛봤다.

거센 여풍과 맞물려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가 떠올랐다. 한국 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지난해 1.16명에 비해 0.08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전남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가 됐다. 전남의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101.9명이었다.

연초부터 몰아친 부동산 광풍은 다주택자에게는 '돈 바람'이었지만 무주택 서민에게는 가슴을 후벼파는 '칼바람'이었다. 11월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각각 19.7%와 20.2% 급등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각각 3.1%와 1.0% 상승하는데 그쳐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컸다.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전남대와 조선대의 올 졸업생들의 순수취업률이 각각 47.7%와 52.4%에 불과하는 등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이를 빗댄 신조어도 등장했다.'이구백'(20대 90%가 백수), '나 홀로 서울족'(지방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 혼자 자취하는 구직자)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에서는 네티즌이 직접 만든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인터넷 스타를 배출하고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무명의 기타리스트였던 임정현(22)씨는 자신이 연주한 동영상UCC로 하루아침에 전세계 800만 네티즌의 사랑을 받는 유명인사가 되며 네티즌의 UCC 제작 열풍에 불을 지폈다. 특히 '꼭짓점댄스' UCC동영상은 지난 6월 독일월드컵 당시 응원 열풍을 몰고 왔다.

영화 '괴물'에서 나온 '한강 괴물'이 1천300만 관객몰이를 하더니, 완도 생일도에선 흑염소를 잡아먹는 괴물이 나타나 전문엽사까지 동원하는 소동 끝에 멧돼지 5마리를 잡고서야 일단락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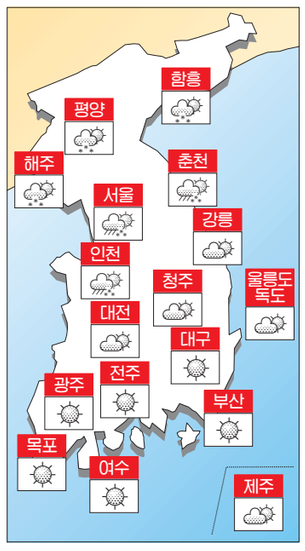
영아보호소에 산타 오셨네 외로운 아기 천사들을 위해 사랑을 배달하는 산타클로스가 등장했다. 20일 오후 GS칼텍스의 광주·전남 빛고을 사회봉사단 20여 명이 광주 영아일시 보호소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행복 대형 트리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추위 물리는 햇살

12월 21일 (음 11월 2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오후 늦게부터 흐려지겠다.

광주	구름조금	0~9℃
목포	구름조금	1~9℃
여수	구름조금	3~10℃
완도	구름조금	1~10℃
구례	구름조금	-3~9℃
해남	구름조금	-4~9℃
장흥	구름조금	-4~9℃
고흥	구름조금	-3~11℃
순천	구름조금	-4~10℃
영광	구름조금	-1~10℃
진도	구름조금	-1~10℃
전주	구름조금	-1~9℃
남원	구름조금	-5~9℃
정읍	구름조금	-2~9℃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01:59 14:56 썰물 07:25 20:17
여수 밀물 09:44 21:37 썰물 02:56 15:51

▲해뜸 07:37 ▲해짐 17:24 ▲달뜸 08:21 ▲달짐 17:4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날 씨						
최저/최고	-1/9	1/10	2/10	0/11	3/10	2/9

엘니뇨 영향 올 겨울 기습한파 잦다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올 겨울 기습한파와 대설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적도 태평양의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1.5도 높은 고수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엘니뇨 예측모델은 올 겨울 약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해 내년 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겨울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엘니뇨 영향으로 찬 대륙 고기압 세력이 약화되면서 겨울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기습 한파와 대설 등의 이상기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에서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고, 라니냐는 이와 반대로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지역별로 폭설과 기습 한파 또는 홍수 등 이상 기상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제석산 아파트 신축 갈등 심화

주민들 공사 저지…건설사 업무 방해 고발

광주시 남구 제석산 자락에 추진중인 아파트 건설을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건설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에 건설사가 주민들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현장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주와 진월·삼익 세라믹·세원빌라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H건설이 제석산 인근에 추진 중인 129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은 입목도가 192%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불법 공사행위가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공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5일 공사장 입구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저지하고 있으며 광주시에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H건설은 최근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남부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19일에는 법원에 현장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시한 입목도는 나무가 밀집해 있는 지역만 표본 조사한 것이고,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1.30%가 나왔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입목도=(立木度·단위면적당 수목 밀도)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 기준인 입목도는 50% 미만, 경사도 10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본보 신춘문예 출품 929편 예심

지난 15일 마감(당일 우편 소인 유효)된 2007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예심〈사진〉이 20일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신춘문예에는 시 819편, 소설 66편, 동화 44편 등 세 부문에 걸쳐 모두 929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상금은 소설 300만원, 시·동화 각각 100만원. 이번 공모에는 원고지에 정성스럽게 연필로 꾹꾹 눌러쓴 초·중학생의 소설에서부터 70대 노인의 시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문학청년'들이 응모해 반 세기를 넘긴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예심은 소설 부문에 송은일(소설가)·김형중(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씨, 시 부문에 문태준(시인)·김선태(시인·목포대 교수)씨 등이 맡았으며, 본심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당선작은 2007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되며 신춘문예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은 2007년 1월 중순 열린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열린 사이버대학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원격대학인 열린사이버대학이 시정 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열린사이버대학은 2005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교사 인가기준 미확보, 학교회계에서 교사 시설임대료 부당지출, 임의 장소에서의 교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올해 8월29일까지 개선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가시험, 수험생별 시험지 다르게

부정행위 원천 차단키로

정부가 기존 출제방식의 틀을 완전히 탈피해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답지유형의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답지 재배열'출제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21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이 20일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2004년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7월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 '답지 재배열'프로그램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답지 재배열'방식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문항별 답지를 무작위로 조합·재배치한 시험지를 배포하는 '보기 섞기'를 통해 수험생별로 각기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하는 시스템이다.

'답지 재배열'방식의 경우 980만개에 달하는 다른 종류의 시험지를 만들 수 있다. /연합뉴스